

금융자산 선호도 변화와 중기전망

2014. 4.



작성자 : 신성 수석연구위원
(051-620-3627)

■ 목 차 ■

I. 금융자산 변동추이	1
II. 금융회사 수신상품 선호도 변화	4
III. 주식 및 채권관련 상품의 선호도 변화	12
IV. 금융권 손익현황	17
V. 중기전망	22

■ 표 목 차 ■

<표 1> 개인부문 자금순환표(순증기준)	5
<표 2> 은행과 비은행기관과의 금리차이(1년 정기예금 신규취급액기준)	6
<표 3> 상호저축은행 수신규모 추이(연말잔액 기준)	7
<표 4> 비은행 수신규모 추이(연말잔액 기준)	7
<표 5> 대기성자금 규모	7
<표 6> 노후·사망 보장형 상품 추이	9
<표 7> 실적배당형 상품 추이(연말잔액 기준)	11
<표 8> 실질 GDP 및 비금융회사 보유 금융자산 증가율 추이	22
<표 9> 국가별 인구 고령화 현황	23
<표 10> 상위 소득계층(평균대비 1.5배) 의무연금의 소득대체율	24
<표 11> 주요국의 가계금융자산 구성	24
<표 12> 주요 OECD 국가의 예금과 보험자산의 비율	25

■ 그 림 목 차 ■

<그림 1> 금융회사 수신상품 증가율 추이	1
<그림 2> 비금융회사 보유채권 증가율 추이	2
<그림 3> 개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	2
<그림 4>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3
<그림 5> 주식시장 거래대금 회전율 추이	3
<그림 6> 확정 수익형·노후·사망 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추이	4
<그림 7> 은행금리 및 금리격차와 은행수신 비중간의 관계	6
<그림 8> 보험종류별 초회보험료 수입 추이	8
<그림 9> 퇴직연금 신탁 및 연금신탁 상품 잔액 추이	9
<그림 10> 펀드 설정잔액 추이	10
<그림 11> ETF 시가총액 추이	10
<그림 12> 실적배당형 신탁 잔액 추이	11
<그림 13> 주식·혼합·채권형 펀드설정잔액 추이	12
<그림 14> 대체투자 펀드 설정잔액 추이	13
<그림 15> ETF 시장의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14
<그림 16> ETF 시장의 개인 순매수 추이	14
<그림 17> 일임형 랩어카운트 고객수 및 잔고 추이	15
<그림 18> 랩어카운트 운용주체별 계약건수 및 잔고	15
<그림 19> 랩어카운트 운용자산 유형별 비중	16
<그림 20> 금융권 당기순이익	17
<그림 21> 업권별 이익비중	17
<그림 22> 은행 당기순이익	18

<그림 23> 은행 총자산 및 순이자마진	18
<그림 24> 은행 대손상각비	18
<그림 25>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	19
<그림 26> 생명보험사 총자산 규모 및 수익률	19
<그림 27> 증권사 당기순이익	20
<그림 28>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	20
<그림 29>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	21
<그림 30> 자산운용사 펀드 수탁고	21
<그림 31> 자산운용사 투자일임 계약고	21
<그림 32> 2014년 3월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실적 추이	28

I. 금융자산 변동 추이

금융회사 수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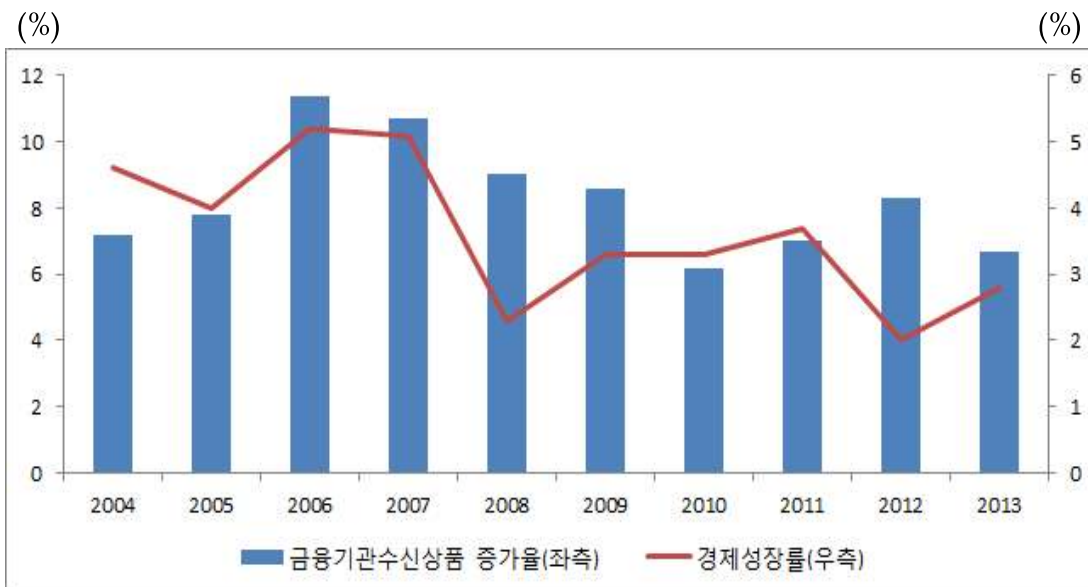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금융회사 수신상품의 증가세 둔화

- 실질 GDP 성장률이 2004~2008년중 연평균 4.2%에서 2009~2013년중 3.0%로 하락하여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차입을 통한 투자 및 소비활동도 저하
- 금융회사 수신상품*의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9.2%에서 7.4%로 낮아졌으며 2013년에는 지난 10년간 2010년(6.2%) 다음으로 가장 낮은 6.7% 증가 시현

· 2013년말 현재 금융회사 수신상품 잔액 : 2,719조원

* 금융회사 수신상품 = 금융기관유동성(Lf) + 손보사 장기저축성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사 환매채

<그림 1> 금융회사 수신상품 증가율 추이



주 :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급변으로 2009년과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치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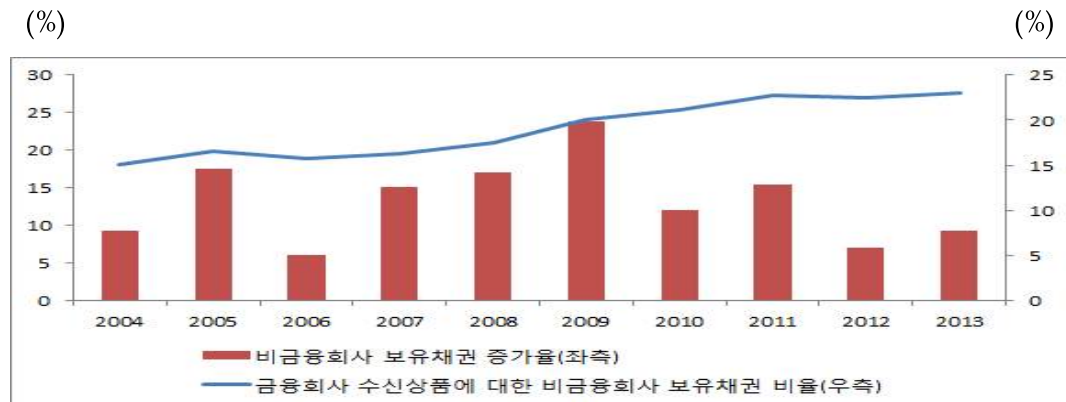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유가증권 투자

□ 채권의 가격리스크와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 증대로 비금융회사 보유채권도 2012년 이후 증가세 크게 둔화

- 비금융회사 보유채권 증가율은 2007~2011년 중 연평균 16.7%로 매우 높았으나 2012~2013년중 7.5%로 낮아졌는데 이는 저금리 및 높은 위험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 위축에 주로 기인
- 동 규모는 2013년말 현재 626조원이며 금융회사 수신상품에 대한 비금융회사 보유채권 비율은 2013년말 23.0%

<그림 2> 비금융회사 보유채권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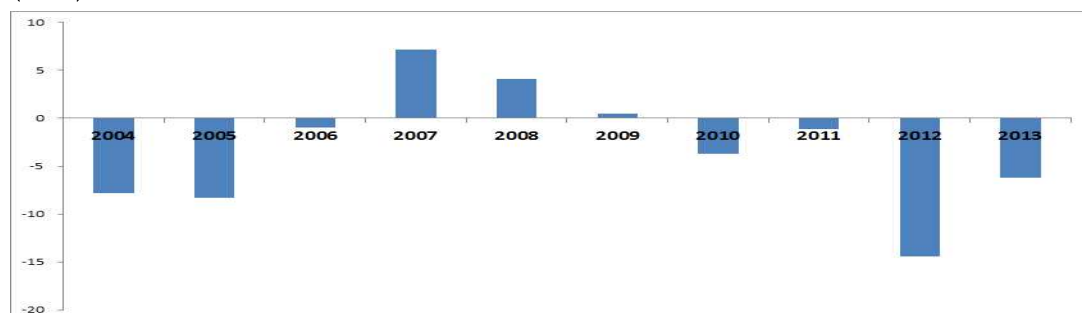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개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폭 확대

- 개인 순매수 규모는 2004~2008년중 -5.8조원에서 2009~2013년중 -24.9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2~2013년중 큰 폭의 마이너스 시현

<그림 3> 개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

(조원)



자료 : 한국거래소

□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과 회전율도 2012년부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9.2조원을 고점으로 2012~2013년중(연평균 6.3조원) 큰 폭으로 감소
- 주식 회전율은 2009년을 고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2~2013년 중 감소폭 확대

<그림 4>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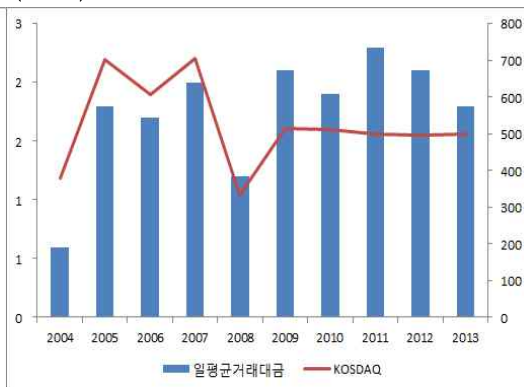
(조원)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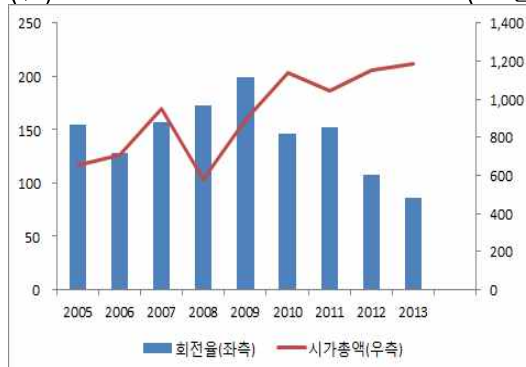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

<그림 5> 주식시장 거래대금 회전율 추이

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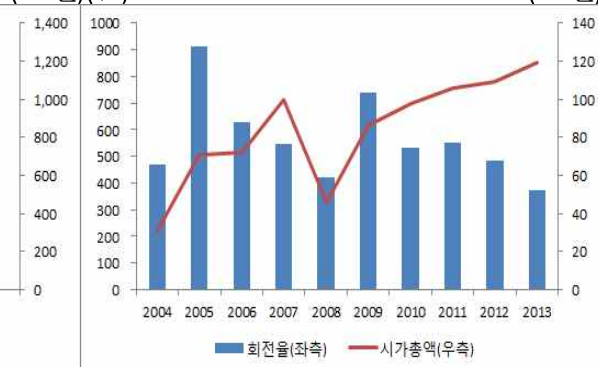
(%)



주 : 회전율 = 연간거래대금/시가총액×100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

(조원)(%)



자료 : 한국거래소

II. 금융회사 수신상품 선호도 변화

□ 금융회사 수신상품의 구성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확대되어 실적배당형 상품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

- 주가 또는 금리 변동에 연계된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2004년말 15.0%에서 2007년말 19.5%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3년말에는 14.8%를 기록
- 실적배당형 상품의 규모도 2004년말 137조원에서 2008년말 275조원으로 늘어난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
 - 개인의 수익증권 투자는 2009년 이후 순환매로 전환되어 2009~2013년중 순환매 규모가 76.3조원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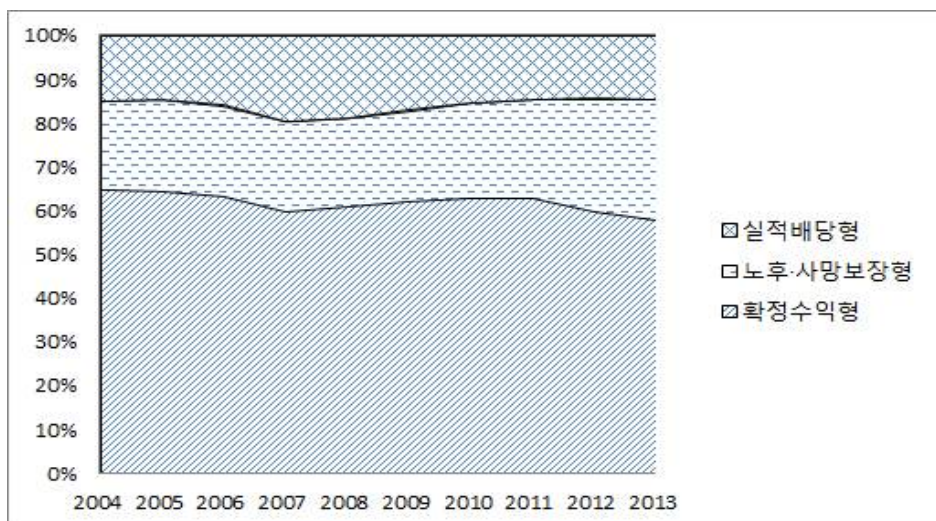
□ 노후·사망 보장형 상품에 대한 수요는 2012년 이후 크게 확대

- 노후·사망 보장형 상품의 비중은 2004~2011년중 21%내외를 유지하다가 2012년 25.4%, 2013년 27.1%*로 상승

* 보험상품은 회계연도말(익년도 3월말), 2013년은 12월말 기준

- 노후·사망 보장형 상품의 연간 증가규모는 2004~2011년중 30조원 정도 이다가 2012년 100조원을 넘어섰음. 2013년말 잔액은 527조원

<그림 6> 확정 수익형·노후·사망 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 특히 2012~2013년 중에는 개인의 보험·연금 순유입규모가 172.6조원으로 현금·예금 순유입규모(130.7조원)를 상회

<표 1> 개인부문 자금순환표(순증기준)

(단위 : 조원)

	2004~07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현금·예금	29.1	56.9	95.8	100.1	83.4	59.5	71.2
보험·연금	34.7	32.0	52.4	58.1	56.6	89.1	83.5
채권	0.5	5.2	13.2	11.4	3.5	1.7	-0.3
수익증권	29.0	21.9	-23.2	-31.6	-8.6	-7.4	-5.5
주식	7.3	8.9	6.6	3.8	5.4	-8.2	-0.8
기타	0.4	0.9	0.6	-	-	-	-
합계	101.0	125.9	145.4	141.8	140.4	134.7	148.2

자료 : 한국은행

□ 금융회사 수신외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확정수익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 확정수익형 상품의 비중은 2004년말 65.1%에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 이후 일시 상승하였으나 2013년말 58.2%를 기록하여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60%를 하회

· 2013년말 확정수익형 상품 잔액 : 1,133조원

(상품분류)

- 확정수익형 : 예금은행(정기예금, 정기적금, CD 및 RP), 비은행기관수신(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수신), 은행 신탁계정 중 특정금전신탁, 단, 2013년 신탁은 9월말 기준
- 노후·사망보장형 : 생명보험(책임준비금 및 특별계정 부채), 은행 신탁계정중 연금관련 상품(노후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운용, 신개인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연금신탁), 단, 은행신탁은 12월말, 생명보험은 익년도 3월말 기준이며, 2013년은 12월말 기준
- 실적배당형 : 펀드(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펀드), 실적배당형 신탁(은행 신탁계정 중 특정금전신탁과 퇴직연금 등 연금관련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단, 2013년 신탁은 9월말 기준

확정수익형 상품별 증가 추이

□ 확정수익형 상품 중 은행수신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소폭 하락

- 은행수신* 비중은 2004~2008년중 58.0%에서 2009~2013년중 56.5%로 낮아졌으며 특히 2013년말에는 55.7%로 2010년(55.7%)과 함께 지난 10년래 최저

* 정기예금, 정기적금, CD, RP

- 이는 2010년부터 예대율 규제 강화로 CD를 예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CD발행이 대폭 감소한 데 주로 기인

(CD 순발행 평균잔액 : 2004~2008년 77조원 → 2009~2013년 47조원)

- 은행금리 또는 비은행 금리와의 격차와 은행수신 비중의 변화를 보면 금리격차 보다는 은행금리와 은행수신 비중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은행수신 비중도 2004~2008년중 평균 63.4%에서 2009~2013년중 61.7%로 하락

<그림 7> 은행금리¹⁾ 및 금리격차²⁾와 은행수신 비중간의 관계



주 : 1) 정기예금(1년) 신규 취급액 기준

2) 비은행 금리는 상호저축은행, 신탁, 상호금융정기예금 (1년) 신규 취급액 기준 단순평균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표 2> 은행과 비은행기관과의 금리차이(1년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 %, %p)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은행(A)	3.87	3.27	4.50	5.17	5.87	3.48	3.86	4.15	3.70	2.89
비은행기관(B)	4.95	4.49	5.01	5.44	6.41	4.80	4.40	4.65	4.12	3.07
차이(B-A)	1.08	0.77	0.51	0.27	0.54	1.32	0.54	0.50	0.42	0.18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비은행 수신비중은 2004~2008년 평균 36.6%에서 2009~2013년 38.3%로 상승하였는데 2011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

- 특히 상호저축은행 수신 증가율은 2004~2009년중 연평균 18.2%에 달하였으나 2010년 4.8%로 둔화되고 2011년 이후에는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

<표 3> 상호저축은행 수신규모 추이(연말잔액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신잔액	32.6	37.3	44.5	50.4	60.9	73.3	76.8	63.0	42.8	33.1
증가율	21.1	14.2	19.4	13.3	20.8	20.3	4.8	-17.9	-32.1	-22.6

자료 : 한국은행

- 신탁·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수신증가율도 2004~2010년중 연평균 10.7%에 달하다가 2011년 이후 연평균 6.3% 증가에 그치고 있음

<표 4> 비은행 수신규모 추이(연말잔액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탁·신탁동조합	18.9	20.5	22.6	23.3	26.5	34.8	41.9	43.3	48.8	50.2
상호금융	122.4	136.5	154.1	156.5	170.3	193.0	212.5	226.5	242.7	252.7
새마을금고	41.9	45.8	51.1	50.8	56.2	68.2	79.9	79.1	92.1	97.9
합계	183.2	202.9	227.8	230.6	252.9	296.0	334.2	349.0	383.7	400.8
증가율	10.7	10.7	12.3	1.3	9.7	17.0	12.9	4.4	9.9	4.5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대기성 자금 규모는 2013년말 현재 498조원으로 확정수익형 상품(1,133조원)의 44.0%에 달함

<표 5> 대기성자금 규모

(단위 : 조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성자금	268.9	309.3	329.1	326.9	383.3	411.8	437.3	431.4	466.2	498.1

주 : 1) 대기성 자금은 은행 요구불 예금(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포함), MMF, CMA를 합산한 금액

2) CMA의 경우 2006년부터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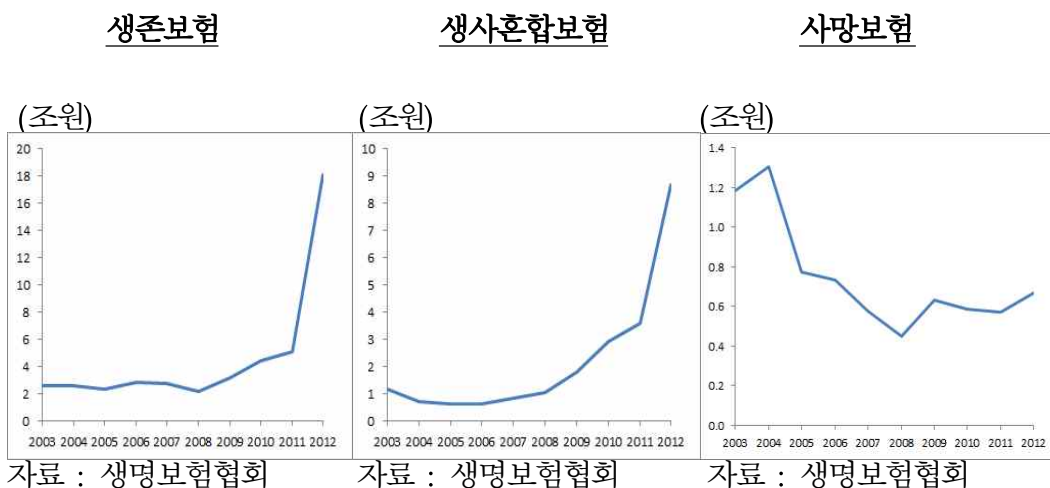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노후·사망보장형 상품별 증가 추이

□ 2012년부터 생명보험중 생존 및 생사혼합 상품이 급격히 증가

- 생명보험 준비금 잔액은 2004~2011 회계년도중 매년 10%대 초반의 신장세를 보이다가 2012 회계년도중 23.5% 증가하였으며 2013년 12월말에는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
- 2009~2011 회계년도의 3년간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연평균 초회 보험료 수입규모는 각각 4.2조원과 0.6조원인데 비해 2012 회계년도의 연간 초회보험료 수입규모는 각각 18조원과 8.7조원으로 급증
 - * 연금보험(즉시연금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포함), 교육보험 등
 - ** 양로보험, 저축성보험 등
- 이는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보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되고 거치식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설정된 데 주로 기인
- 한편 사망보험*에 대한 초회보험료 수입규모는 2008 회계년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소폭 반등
 - *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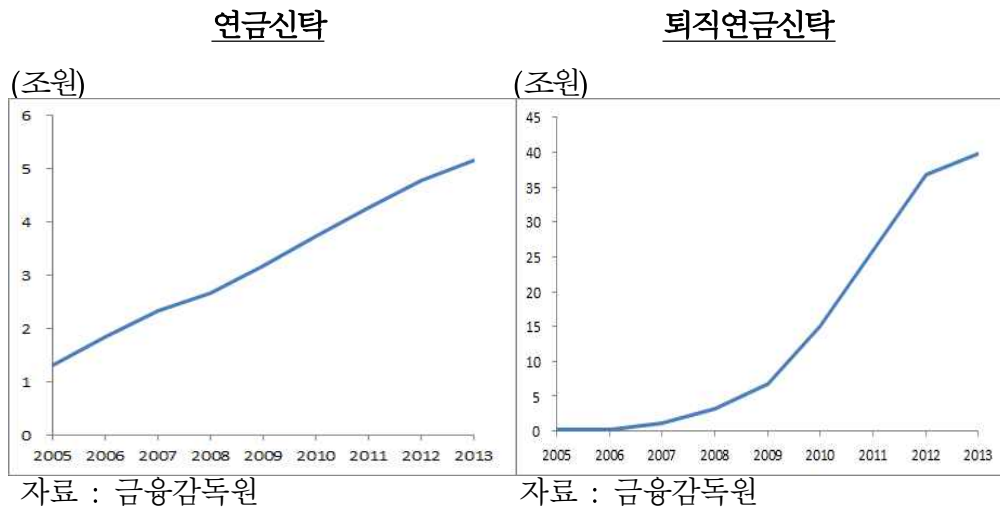
<그림 8> 보험종류별 초회보험료 수입 추이



□ 은행 신탁계정중 퇴직연금신탁과 연금신탁 상품의 증가세가 뚜렷함

- 연금형 신탁상품 잔액은 2010년 이후 급증하여 30조원을 넘어섰으며 2013년 9월말 53조원을 기록
- 퇴직연금신탁과 연금신탁 상품이 은행 신탁계정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퇴직 연금신탁 상품을 최초 도입한 2005년말 9.1%에 불과 하였으나 2013년 9월말 85.1%까지 증가
- 이는 2011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연금신탁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 데 주로 기인

<그림 9> 퇴직연금 신탁 및 연금신탁 상품 잔액 추이



<표 6> 노후·사망 보장형 상품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명보험	181 (13.1)	204 (12.7)	232 (13.7)	264 (13.8)	283 (7.2)	317 (12.0)	353 (11.4)	383 (8.5)	473 (23.5)	527 (11.4)
연금형신탁	16 (14.3)	16 (0.0)	17 (6.3)	18 (5.9)	20 (11.1)	23 (15.0)	30 (30.4)	39 (30.0)	50 (28.2)	53 (6.0)
합계	197 (13.2)	220 (11.7)	249 (13.2)	282 (13.3)	303 (7.4)	340 (12.2)	383 (12.6)	422 (10.2)	523 (23.9)	580 (10.9)

주 : 1) 생명보험은 회계연도말(익년도 3월말 기준), 2013년은 12월말 기준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금융감독원

실적배당형 상품별 증가 추이

□ 펀드규모는 2008년까지 빠른 신장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ETF 규모는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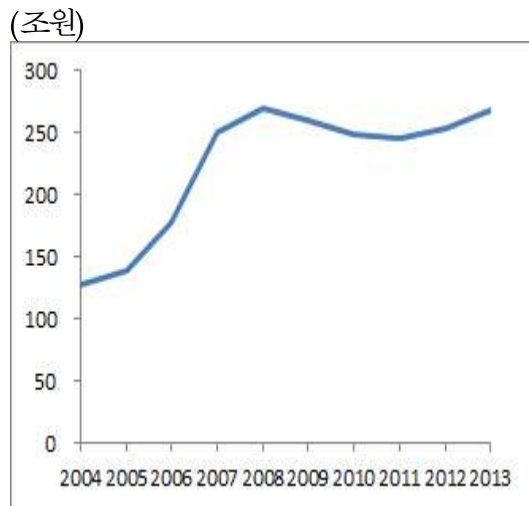
- 펀드 규모는 2008년말 271조에서 2013년말 268조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ETF 규모는 3.4조원에서 19.4조원으로 증가

- 국내 일반 주식형 펀드의 3년 수익률을 보면 177개 펀드 중 110개가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2.7%) 대비 낮은 성과*를 나타내어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시장수익률 대비 높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

* 2014년 3월 17일자 기준(자료 : 펀드평가사 제로인(<http://www.fund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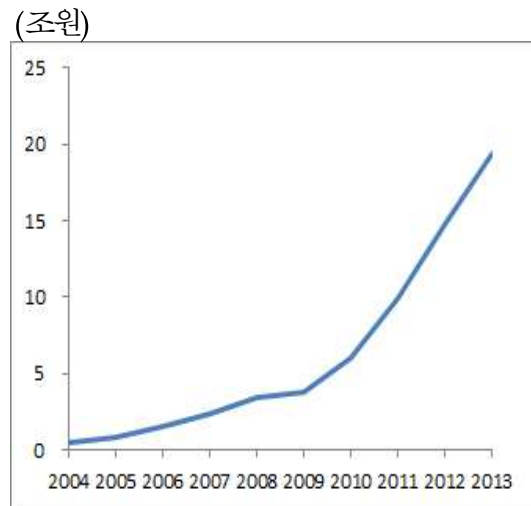
- 또한 일반주식형 펀드의 수수료는 연간 1~3%인 반면 ETF는 0.015~0.5%에 불과함

<그림 10> 펀드 설정잔액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그림 11> ETF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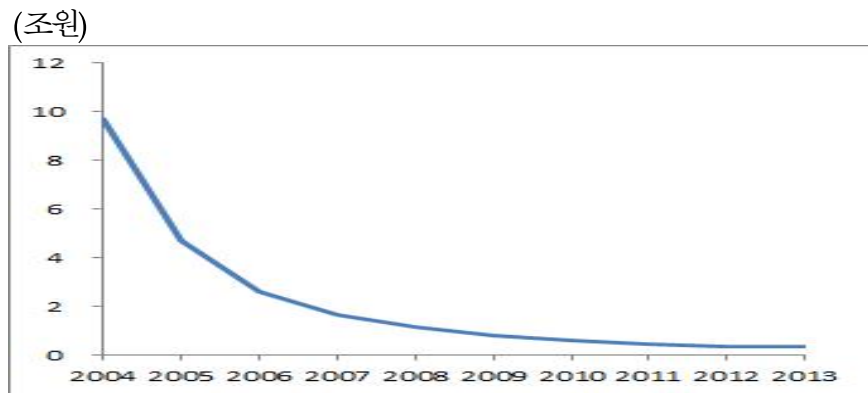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

□ 은행 신탁계정의 실적배당형 신탁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2004년 이후 급격한 규모 감소를 보임

- 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 규모는 2004년말 9.7조원에서 2013년 9월말 0.3조원으로 크게 감소함
- 2004년 7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신탁회사의 운용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연금신탁 등 원금 보전형 상품을 제외한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 판매 및 추가적립이 중단

<그림 12> 실적배당형 신탁 잔액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표 7> 실적배당형 상품 추이 (연말잔액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펀드	127.2 (23.5)	139.5 (9.7)	177.5 (27.2)	249.7 (40.7)	270.5 (8.3)	260.2 (-3.8)	248.2 (-4.6)	245.4 (-1.1)	254.1 (3.5)	268.0 (5.5)
ETF	0.5 (-28.6)	0.8 (60.0)	1.5 (87.5)	2.4 (60.0)	3.4 (41.7)	3.8 (11.8)	6.1 (60.5)	9.9 (62.3)	14.7 (48.5)	19.4 (32.0)
실적배당형 신탁	9.7 (-37.0)	4.7 (-51.5)	2.6 (-44.7)	1.7 (-34.6)	1.1 (-35.3)	0.8 (-27.3)	0.6 (-25.0)	0.5 (-16.7)	0.4 (-20.0)	0.3 ¹⁾ (-25.0)
합계	137.4 (15.4)	145.0 (5.5)	181.6 (25.2)	253.8 (39.8)	275.0 (8.4)	264.8 (-3.7)	254.9 (-3.7)	255.8 (0.4)	269.2 (5.2)	287.7 (6.9)

주 : 1) 2013년 9월말 기준

2) ()내는 전년말대비 증가율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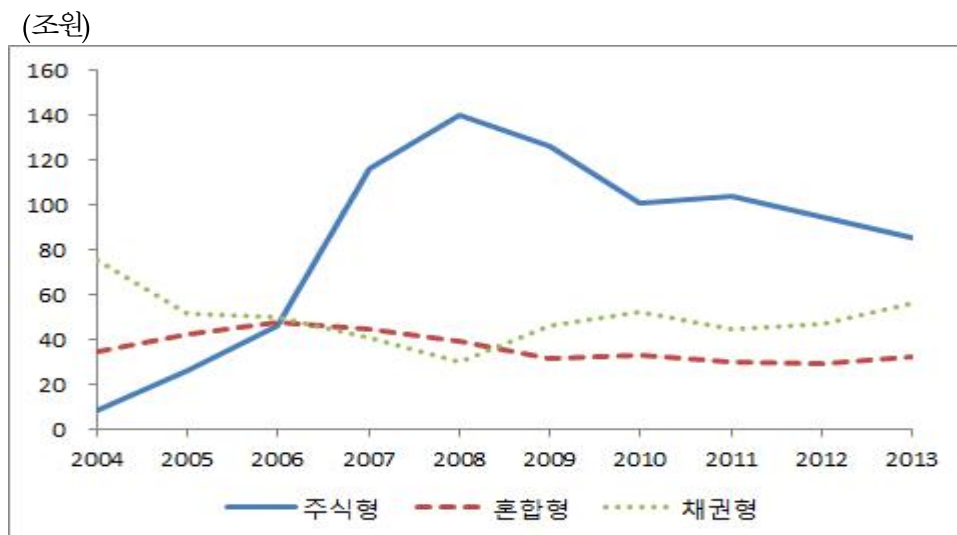
III. 주식 및 채권관련 상품의 선호도 변화

펀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형 펀드의 자금유출 및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 증가

- 주식형 펀드의 설정잔액은 2008년말(140.2조원)을 고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13년말 85.5조원을 기록
 - 채권형 펀드의 설정잔액은 2008년말(30.3조원)을 저점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2013년말 56.1조원을 기록
 - 혼합형 펀드의 설정액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룡쑈펀드* 설정액 증가 등으로 2012년말 29.2조원에서 2013년말 32.1조원으로 증가
- * 2012년말 1,773억원에 불과했던 설정잔액이 2013년 2월말 2조원으로서 1년여만에 10배 이상 증가(자료 : 펀드평가사 제로인)

<그림 13> 주식·혼합·채권형 펀드설정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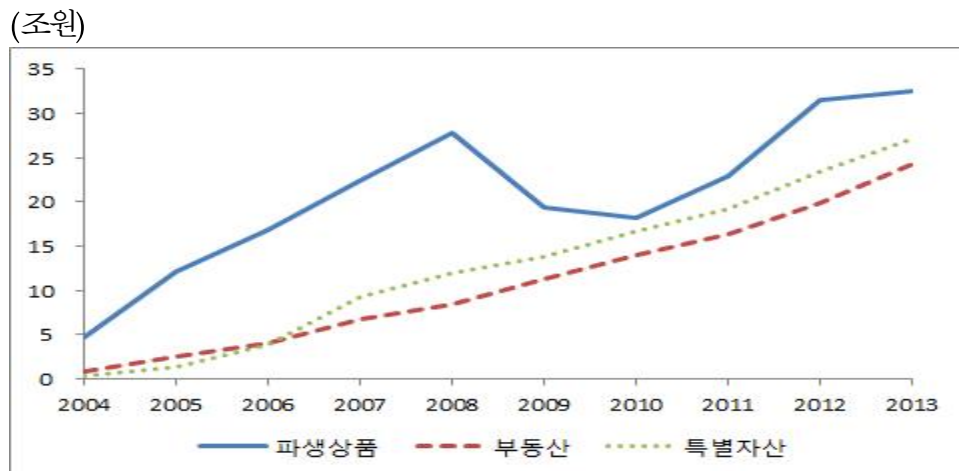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추세

- ELF 등 파생상품 펀드는 2008년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가 2011년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
-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 설정액은 2004년 1.3조원에서 2013년 51.5조원으로 40배로 성장
- 한편 2013년말 대체투자상품 펀드 설정잔액은 83.9조원으로 전통투자상품 펀드(173.7조원)의 48.3%

<그림 14> 대체투자 펀드 설정잔액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ELS · D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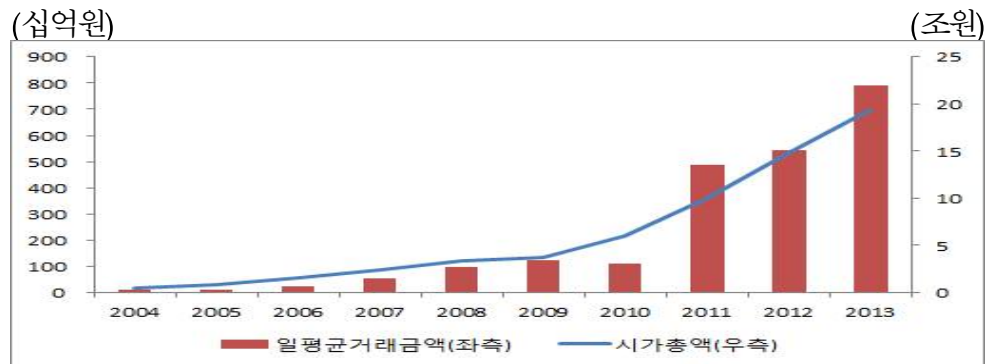
- ELS 발행액은 2004~2008년중 연평균 17.6조원에서 2009~2013년중 32.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말 미상환 잔액은 444.8조원에 달함
- DLS 미상환잔액은 2013년말 현재 243.3조원으로 2011년말(76.9조원) 대비 3.2배로 증가

ETF

□ ETF의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ETF 시장의 시가총액은 2004년말 0.5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말 19.4조원으로 증가
- 일평균 거래대금은 2004년 11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7,900억원에 달해 72배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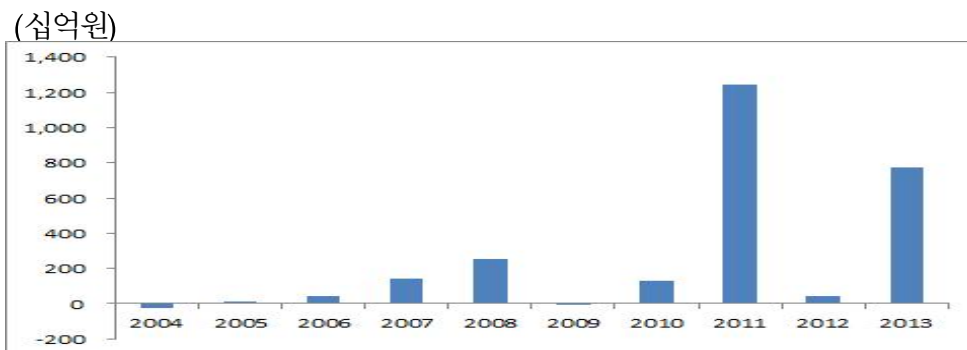
<그림 15> ETF 시장의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2011년 1조 2,450억원, 2013년 7,730억원으로 크게 증가

<그림 16> ETF 시장의 개인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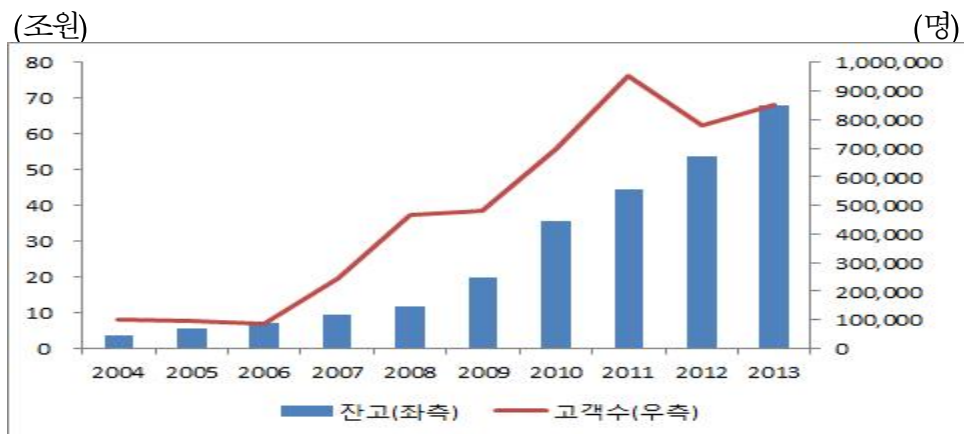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

Wrap Account

□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고객수 및 잔액은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

- 일임형 래퍼카운트 고객수는 2004년말 10만명에서 2013년말 85만명으로 증가
 - 2013년말 잔액 : 68조원

<그림 17> 일임형 랩어카운트 고객수 및 잔고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 랩어카운트의 운용주체는 본사 운용형이 주종을 이루고 운용유형은 채권형이 가장 많음

-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운용주체는 본사운용형이 계약건수의 98.4%, 잔액의 93.8%를 차지하며 지점운용형은 매우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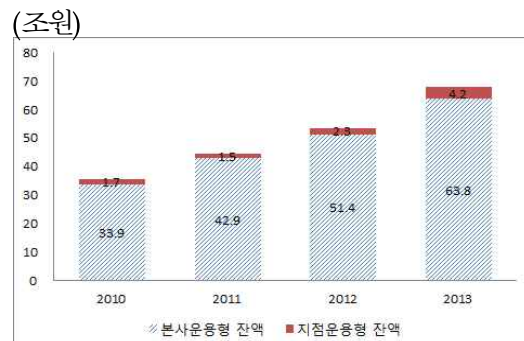
<그림 18> 래퍼카운트 운용주체별 계약건수 및 잔고

전수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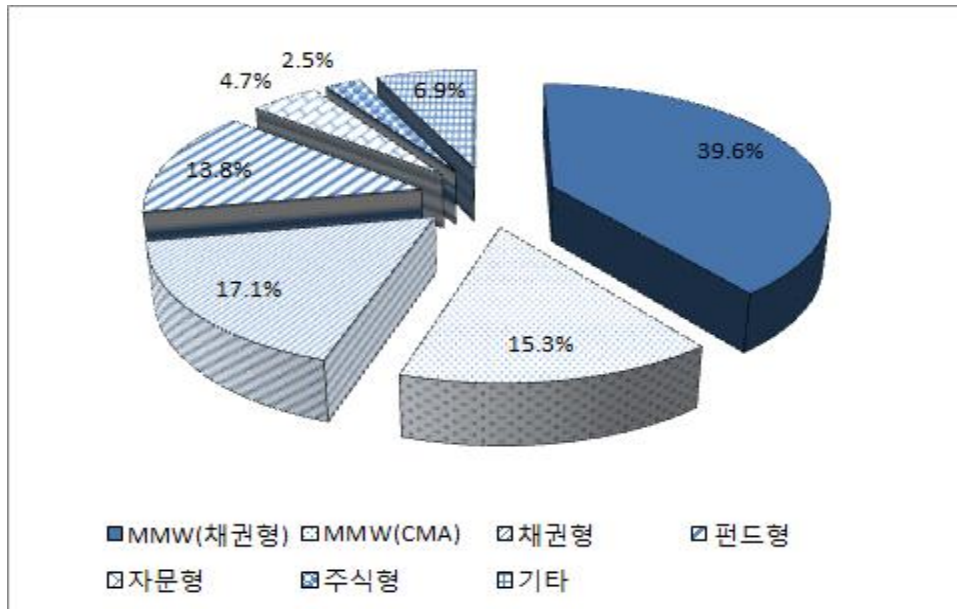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운용유형별로 보면 2013년 6월말 현재 채권형이 56.7%(채권형 MMW포함), CMA형 MMW가 15.3%, 펀드형이 13.8%이며 주식형은 2.5%에 불과함

<그림 19> 랩어카운트 운용자산 유형별 비중



자료 : BS 투자증권

IV. 금융권 손익현황

전체 금융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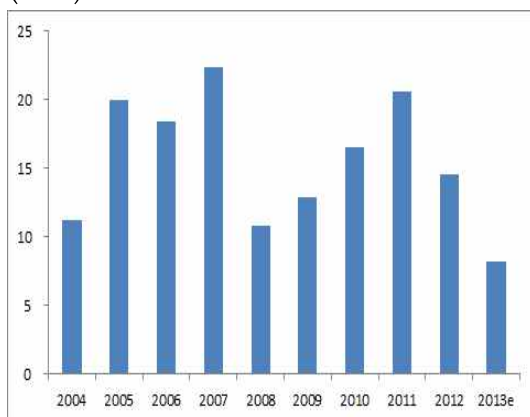
* 은행, 생명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만을 대상으로 함

□ 전체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 은행과 증권사의 부진이 주된 원인이며 2013년은 2004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전체금융권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차지하는 이익비중은 2011년 82.1%에서 2013년 56.9%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상대적으로 이익규모가 양호한 생명보험사와 자산운용사의 이익비중은 2011년 17.9%에서 2013년 43.1%로 증가함
- 이는 저성장·저금리 및 고령화로 인한 확정수익형 상품,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후보장형 상품,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선호 증가를 반영

<그림 20> 금융권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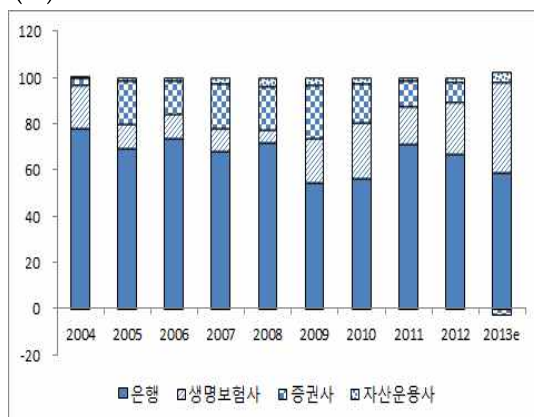
(조원)



주: 생명보험사와 증권사의 2013 회계연도 이익은 추정치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21> 업권별 이익비중

(%)



주: 생명보험사와 증권사의 2013 회계연도 이익은 추정치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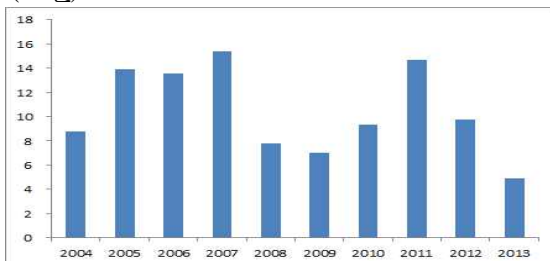
은행

□ 2013년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

-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은 2004~2008년 연평균 11.1%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8%로 급격히 둔화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2013년순이자마진(NIM)이 2004년 이후 최저치(1.87%)를 기록
- 대손상각비는 2004년 카드사태로 인하여 급증한 후 2005~2007년 감소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기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이와같이 은행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총자산 증가율 둔화와 순이자마진(NIM)의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손상각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그림 22> 은행 당기순이익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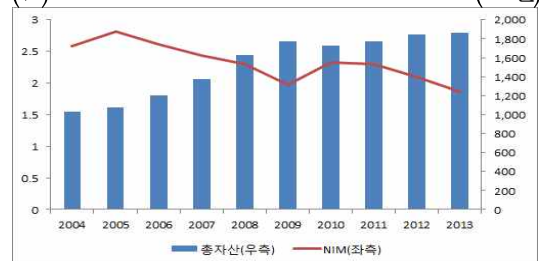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3> 은행 총자산 및 순이자마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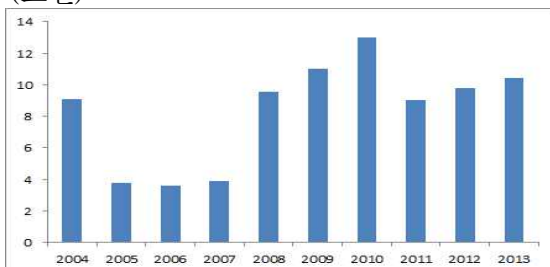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4> 은행 대손상각비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

□ 2012~2013년중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11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이후가 그 이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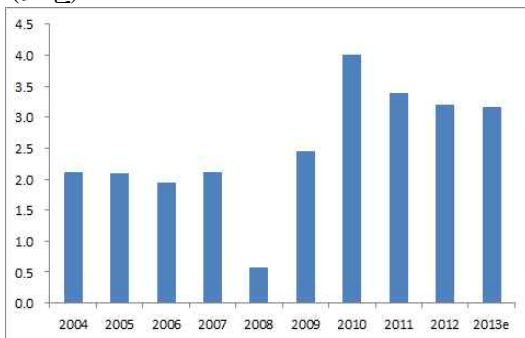
- 생명보험사의 총자산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베이비 부머의 은퇴수요 증가 및 세법개정*으로 인한 즉시연금 및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즉시연금 및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2억원으로 설정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하락으로 총자산수익률은 낮아졌음

<그림 25>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

(조원)



주 : 회계연도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6> 생명보험사 총자산 규모 및 수익률

(%)

(조원)



주 : 1) 회계연도 기준
2) 총자산은 미상각신계약비,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수치
자료 :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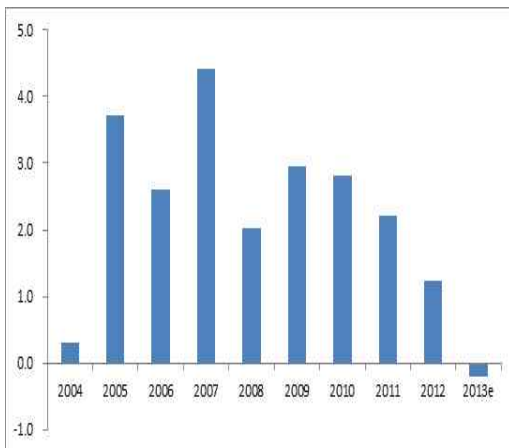
증권사

□ 2013년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 증권사는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 및 거래량 감소로 인해 2012 회계연도부터 주수익원인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급감하였으며 2013 회계연도에는 최근 10년래 처음으로 당기순손실 예상
- 2013 회계연도에는 증권사의 인원 및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판매관리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관련이익, 위탁매매수수료, 인수 및 주선 수수료 등의 감소로 실적 악화
- 증시침체와 거래대금 축소로 인한 실적악화는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구조적 재편이 필요한 상황

<그림 27> 증권사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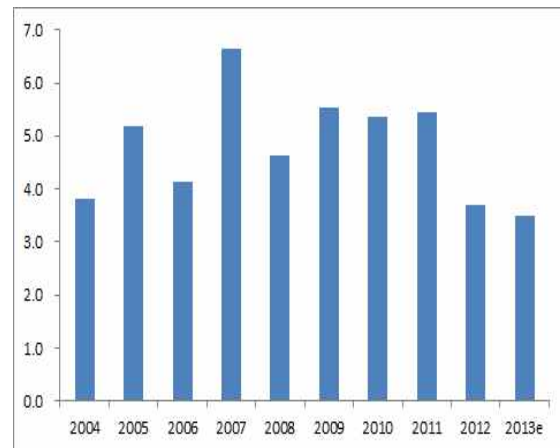
(조원)



주 : 회계연도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8>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

(조원)



주 : 회계연도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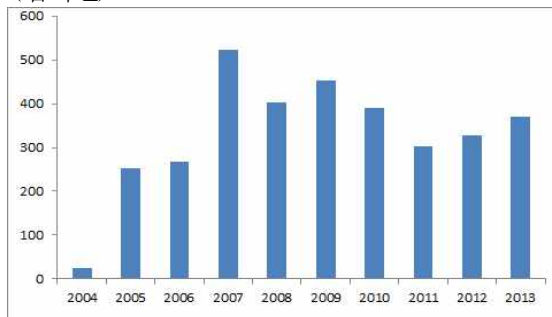
자산운용사

□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은 최근 2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자산운용사의 순이익 증가는 2012년 이후 기관을 중심으로 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 계약고 증가로 인한 펀드운용보수 및 투자일임 수수료 증가에 기인함
- 2013년말 기준 펀드수탁고는 전년대비 주식형펀드에서 9.1조원 유출된 반면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등이 각각 9.1조원, 4.4조원, 3.8조원 증가
- 투자일임 계약고는 2011년 230.1조원에서 2013년 293.4조원을 기록함으로써 연평균 12.9%의 증가세를 보임
- 이는 중위험·중수익 상품과 맞춤형 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호를 반영

<그림 29>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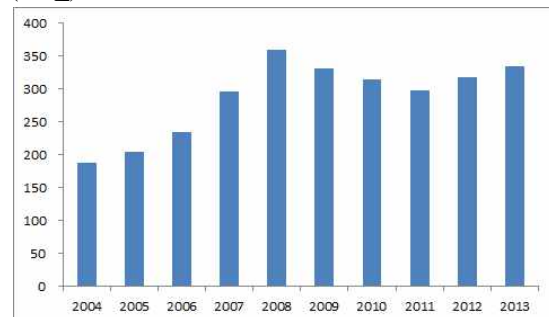
(십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30> 자산운용사 펀드 수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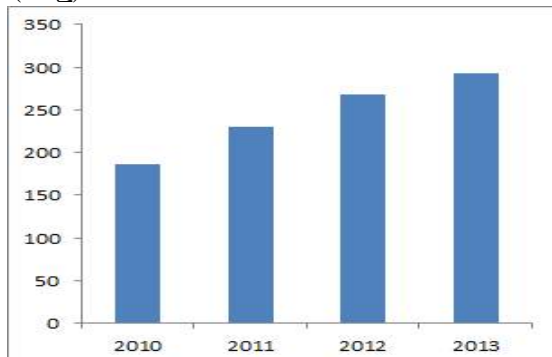
(조원)



자료 : 금융투자협회

<그림 31> 자산운용사 투자일임 계약고

(조원)



자료 : 금융투자협회

V. 중기 전망

금융자산 증가세 소폭 확대

□ 2014년 이후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확대로 국내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금융회사 보유 금융자산의 증가세는 다소 확대될 전망

- IMF(2013.10월)에 따르면 2014~2018년중 국내 실질GDP 성장률은 연평균 3.9%로 전망되어 2010~2013년중 실질GDP 성장률(3.7%)을 상회

- 이에 따라 2014~2018년중 비금융회사 보유 금융자산 증가율도 2010~2013년중 증가율(7.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기간중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로 10%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광의유동성(L) 증가율이 한 단계 낮아지기 시작한 2005년에 1955년 출생자가 50세에 도달하고, 또 한 단계 하락한 2010년에는 55세에 도달

* 2003~2004년중에는 신용카드 부실사태로 금융자산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4~2018년에는 1955년 출생자는 59~63세, 1963년 출생자는 51~55세에 도달하게 됨

<표 8> 실질 GDP 및 비금융회사 보유 금융자산 증가율 추이

구 분	1996~2002	2003~2004	2005~2009	2010~2013
실질GDP	5.3	3.7	3.9	3.7
비금융회사 금융자산 (광의유동성)	12.9	6.6	10.4	7.7

주 :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2010년 그 반사효과로 급등한 점을 감안하여 2009년 및 2010년 실질GDP 성장률은 2개년 평균치를 사용
자료 : 한국은행

안전자산은 연금형 상품 중심으로 증가

□ 최근 노후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의 급속한 상승은 저금리, 인구 고령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그 밖에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도 연금상품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독일의 연구에서도 보험 및 연금자산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은 고령화, 세제혜택, 리스크분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Fred Ramb & Michael scharnag, Households' Portfolio structure in German - Analysis of Financial Accounts Data 1959-2009)

□ 중기적으로 저금리 기조 지속 예상

- 실질 GDP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3~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이에 따라 정기예금을 통한 노후 대비 저축수요가 감퇴되고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

□ 인구 고령화 빠른 속도로 진행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전망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이 미국보다 1/2 가량, 일본 보다는 2/3 가량 압축된 기간으로 진행 예상

<표 9> 국가별 인구 고령화 현황

구분	도달 연도			소요 연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한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미국	1942년	2014년	2030년	72년	16년
일본	1970년	1994년	2006년	24년	12년

주 :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14% 미만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 20% 미만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함(UN정의)

자료 :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10.4)

□ 이에 비해 상위 소득계층의 의무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 평균 대비 1.5배 소득계층의 공적 및 개인 의무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9.2%로서 미국(33.4%), EU 27개국(53.0%)에 비해 낮음

<표 10> 상위 소득계층(평균대비 1.5배) 의무연금의 소득대체율

(단위 : %)

한국	미국	EU 27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29.2	33.4	53.0	42.0	22.5	47.5	73.9	30.8

자료 : OECD

□ 가계 금융자산에서 보험·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음

-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주식 제외) 중 보험·연금자산 비중은 34.7%로서 미국(46.9%) 및 유로지역(38.0%) 보다 낮음
- 한편 일본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연금 지급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연금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표 11> 주요국의 가계금융자산 구성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유로
현금예금	49.9	18.9	58.6	42.3
채권	6.3	12.4	2.0	7.7
펀드	8.2	17.5	5.3	8.5
보험연금	34.7	46.9	29.5	38.0
기타	0.9	4.3	4.6	3.5
합계	100.0	100.0	100.0	100

주 : 1) 2013년말 기준, 단 유로지역은 2013년 9월말 기준

2) 주식의 경우 경영권 지분이 국가별로 차이가 크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 일본은행 조사통계국

□ 이와 같이 경제상황, 인구 고령화 추세, 연금의 소득대체율 등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전망

- 이 경우 대체관계에 있는 정기예금 수요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주요 OECD 국가의 예금자산과 보험자산의 비중을 보면 대체로 보험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예금자산의 비중이 낮음

<표 12> 주요 OECD 국가의 예금과 보험자산의 비율

(단위 : %)

구분	예금	보험	구분	예금	보험
한국	45.0	21.0	덴마크	21.2	48.5
일본	54.9	27.1	네덜란드	24.1	59.4
오스트리아	49.1	20.3	호주	24.6	59.4
스페인	47.0	14.9	스위스	27.8	42.7
헝가리	37.0	19.7	영국	28.7	53.2

주 : 2009년말 기준

자료 :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1

위험자산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 중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산증식을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주식 직접투자 및 주식형 펀드에 대한 수요는 위축되었으나 ETF, 브라질 채권, 선진국 주식투자 등 다른 형태의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중기적으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되기 어려울 전망
 -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 고위험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기피
 - 2013년 가계에 대한 조사에서도 금융자산 투자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안전성을 응답한 비율이 75.5%에 달함

- 확정수익형 상품의 수익성 저하와 금융자산 투자시 안전성 선호 등을 감안할 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 지속 전망
 - 주식 직접투자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아직 중위험 상품의 시장 규모나 선택폭이 작기 때문에 금융회사도 관련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으로 보임

[참고] 국내총생산(GDP) 및 금리추이

(단위 : %)

구분	GDP 성장률(명목)	GDP 성장률(실질)	정기예금금리 (1년~2년미만)
2000	9.9	8.8	7.94
2001	8.3	4.5	5.79
2002	10.7	7.4	4.95
2003	6.4	2.9	4.25
2004	8.0	4.9	3.87
2005	5.0	3.9	3.72
2006	5.0	5.2	4.50
2007	8.0	5.5	5.17
2008	5.9	2.8	5.87
2009	4.3	0.7	3.48
2010	9.9	6.5	3.86
2011	5.3	3.7	4.15
2012	3.4	2.3	3.70
2013	3.7	3.0	2.89

주 : 1.연말 기준 사용

2.정기예금금리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사용

자료 : 한국은행(2013)

[참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성장률 전망

(단위 : %)

연도	2011~20	2021~30	2031~40	2041~50	전체평균
평균성장률	3.43	3.33	2.64	1.45	2.71

주 :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자본축적의 위축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여 연구

자료 :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거시경제 연구원 김기호(2005)

[참고] 금융자산 투자시 주된 목적

(단위 : %)

구분	주택관련	노후대책	결혼자금마련	사고와질병 대비	자녀교육비 마련	부채상환	기타
비율	15.7	53.4	4.5	3.4	8.4	9.2	5.4

자료 : 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참고] 금융자산 투자시 우선 고려 사항

(단위 : %)

구분	수익성	안전성	현금화가능성	접근성	기타
비율	12.2	75.5	5.8	6.3	0.2

자료 : 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저렴한 수수료와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 지속

□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싼 주식형 펀드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주식직접투자자 대신 ETF에 대한 거래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임

- 일반주식형 펀드의 수수료는 연간 1~3%인 반면 ETF는 0.015~0.5%에 불과
- 주식 직접투자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등을 ETF 거래에는 부담하지 않음
 - * 주식양도시 유가증권 시장은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를 부과하며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 0.3%를 부과함

□ 정기예금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노후보장형 절세상품과 소득공제 상품에 대한 가입 증가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축소됨에 따라 연금 및 저축성 보험에 대한 가입 급증**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되고 거치식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설정
 - ** 생명보험사 2009~2011 회계연도의 3년간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연평균 초회 보험료 수입규모는 각각 4.2조원과 0.6조원인데 비해 2012 회계연도의 연간 초회보험료 수입규모는 각각 18조원과 8.7조원으로 급증
- 2014년 3월 17일 출시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출시 2주만에 누적계좌수와 판매액이 10만계좌와 130억원을 기록

<그림 32> 2014년 3월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실적 추이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저렴한 수수료와 절세를 통한 실질수익률 제고에 대한 고객 니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저렴한 수수료*와 분산투자를 내건 뱅가드의 인덱스 펀드 수익률은 1980년부터 25년간 연평균 12.3%로 액티브 펀드(10.0%)보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세계 최대 펀드회사로 성장

* 액티브 펀드의 수수료율은 연간 1~2%인데 비해 뱅가드 그룹의 인덱스 펀드의 수수료는 0.24%에 불과

-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사 공시이율과 은행 정기예금의 차이 및 세금효과로 인하여 실질수익률이 더 높음**

* 2013년 개정세법에서 거치식 보험(5년미만의 적립식 포함)과 상속형 즉시연금의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설정 다만, 5년이상의 적립식 보험과 종신형 즉시연금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정기예금 가입자의 적용세율이 높을수록 실질수익률의 차이 확대됨

[참고] 저축성 보험상품과 정기예금 상품의 해지 환급금 비교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보험해지 환급금(A) ¹⁾	정기예금(B) ²⁾			금액차이(A-B)		
		원천징수 세율 ³⁾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시 ⁴⁾		원천징수 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시	
		15.4%	38.5%	41.8%	15.4%	38.5%	41.8%
1년	98,196	102,368	101,722	101,629	-4,172	-3,526	-3,433
2년	101,521	104,793	103,473	103,285	-3,272	-1,952	-1,764
3년	104,979	107,276	105,255	104,968	-2,297	-276	11
4년	108,576	109,817	107,067	106,679	-1,241	1,509	1,897
5년	112,316	112,418	108,911	108,417	-102	3,405	3,899
6년	116,207	115,081	110,787	110,184	1,126	5,420	6,023
7년	120,254	117,807	112,694	111,980	2,447	7,560	8,274
8년	124,464	120,598	114,635	113,805	3,866	9,829	10,659
9년	128,842	123,454	116,609	115,659	5,388	12,233	13,183
10년	133,395	126,379	118,617	117,544	7,016	14,778	15,851

- 주 : 1) (무)교보First저축보험Ⅱ(거치형) 상품을 대상으로 분석함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해지 환급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함
보험관련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모두 감안한 이후의 금액임
보험사 공시이율은 3.96%(2014년 4월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공시이율은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월단위로 변동하나 보통 은행 정기예금 금리대비와의 차이(1%내외)는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보험사공시이율과 정기예금 금리는 보험만기까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함
2) 정기예금의 이율은 2.8%로 가정하며 원금과 세후이자자의 재예치를 가정함
3) 원천징수세율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시 세율은 소득세과 지방소득세를 모두 감안한 세율임
4) 38.5%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일 경우의 세율임
41.8%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15,000만원 초과일 경우의 세율임